**Survival model for annual turnover according to the compassion capability of nurses**

**신규 간호사의 compassion 역량에 따른 연차별 이직여부 생존모형**

Abstract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s:

Keywords:

**Background**

국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로 인해 간호사는 환자의 최접점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직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의 증가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연구자 차원에서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간호서비스의 근원이 되는 compassion 역량의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선행연구 결과, 간호사의 compassion 역량은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위, 임상 경력 등의 영향요인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compassion 역량은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중 공감만족 (compassion satisfaction)과 소진(burnout) 등의 직무결과와 환자만족도 등의 대상자의 긍정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부터 경력간호사까지 그들의 연령 및 임상경력뿐 아니라 성격, 대인관계능력, 건강수준 등의 다양한 영향요인에 따른 compassion 역량의 수준 및 변화양상에 대한 탐색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임상간호실무에서 요구되는 compassion 역량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간호대학생과 신규간호사의 compassion 역량은 어느 수준인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그 결과로 이직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생존분석으로 간호대학생 및 신규간호사의 compassion 역량과 이직에 영향하는 요인에 따른 이직발생 생존시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직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Aims**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및 신규간호사의 compassion 역량과 이직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의 이직률의 변화를 파악하고, 생존곡선 분석법을 통해 신규간호사의 이직여부 생존모형을 도출한다 이직 결정요인 중 하나의 변수로 compassion 역량의 역할을 살펴본다.

1) 간호사의 이직현황을 파악한다.

2) 간호사의 이직군과 비 이직군의 특성을 비교한다.

3) 대상자의 compassion 역량에 따른 이직 생존시간(이직발생이 없는 시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생존분석을 통해 간호사에게 발생하는 이직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Methods**

**Study design and setting**

본 연구는 공감역량에 따른 연차별 이직 여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규 간호사의 이직 실태 및 이직 생존분석을 위한 종단적 설문 조사연구이다.

Participants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신규간호사, 경력간호사를 3년간 추적조사하는 종단연구로 1차년도 조사에서 각각의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연구대상은 2017년 ~월부터 2020년 ~일까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2750명으로 그룹1(학생)은 전국 간호학과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신입생 제외), 그룹2 (신규 간호사)는 전국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병원에 재직 중이면서 1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그룹 3(3-1~3-6) (경력 간호사)은 전국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 1년 초과~7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이다.

1) 그룹1

2) 그룹2

3) 그룹3

이 연구는 –명 대상자의 공감역량, 성격특성, 건강 특성, 직무 특성, 개인 결과, 직무 결과를 조사 하였다.

**Measurement**

Compassion Competence

**Variables**

**Statistical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직군과 비 이직군의 특성에 대한 차이 검정은 t-test, χ2-test를 하였다. 공감역량에 따른 연차별 간호사의 이직 생존시간은 Kaplan-Meler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간호사의 이직 영향요인은 multivariate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생존시간’은 입사일로부터 이직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사건’은 이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Figure 1 Study flow chart describing the composition of the CC-1 cohort.

**Results**

Studty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by gender and compassion competence as defined by the CCS

(다른 변수도 더 추가?-dataset 확인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ariable | Category | | All | | | | Survival | Turn over |
| N | Percentage of total participant number | M ± SD | Minimum/maximum |  |  |
| Sex | Male | |  |  |  |  |  |  |
| Female | |  |  |  |  |  |  |
| Age (year) | | |  | |  |  |  |  |
| Marriage | | Married |  |  |  |  |  |  |
| Single |  |  |  |  |  |  |
| Nursing experiences (year) | | |  | |  |  |  |  |
| Position | | Head nurse |  |  |  |  |  |  |
| Charge nurse |  |  |  |  |  |  |
| Nurse |  |  |  |  |  |  |
| Etc. |  |  |  |  |  |  |
| Division | Internal medicine | |  |  |  | |  |  |
| Surgical | |  |  |  | |  |  |
| Etc. | |  |  |  | |  |  |
| Degree | 3-year graduation | |  |  |  |  |  |  |
| 4-year graduation | |  |  |  |  |  |  |
| Master's degree | |  |  |  |  |  |  |
| Turnover plan | Yes | |  |  |  |  |  |  |
| No | |  |  |  |  |  |  |
| Turnover | Yes | |  |  |  |  |  |  |
| No | |  |  |  |  |  |  |
| CCS |  | |  |  |  |  |  |  |

Discussion

Conclusion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이직 현황을 파악하고, 연차별로 생존분석을 시행하여 이직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직의 현황과 영향요인을 반영하여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보다